

室鳩巢의 賦三韓事蹟詩 小考

— 18세기 日文學士의 한국사인식 —

李 慧 淳

1. 서 론

본고는 17, 8세기 한일간의 통신사행을 중심으로 행해진 한일문사의 교류와 그 의의를 추적하는 일련의 작업중 하나로 시도된 것이다.¹⁾ 17세기 초부터 조선의 사절이 刷還使란 명칭으로 도일한 후, 회를 거듭할수록 포로쇄환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한일문사간의 교류가 더 관심의 초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시문교류에 대한 일문사들의 열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말부터로서, 1682년, 1711년, 1719년의 제7차, 8차, 9차 사행은 그들의 문화적 욕구가 극대화되어 나타난 시기였다는 것은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당시 한일문사교류의 선두에 나섰던 사람들은 조선측에서는 주로 제술관과 정사·부사·종사관 소속 삼방 서기였고, 간혹 역관 또는 삼사신도 참여했으며, 일본측에서는 막부와 각 번의 유관들이

1) “신유한의 해유록연구”, 인문과학논문집 18집, 서울: 숭실대학교, 1988.
“조선조후기 사행역관의 문화적 역할과 문학세계”, 한국고전문학연구 5집, 서울: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18세기 한일문사의 교류양상-기해사행시 한일문사의 창수집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26집, 서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1. “18세기 한일문사의 금강산-부사산의 우열논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15집. 서울: 한국한문학회, 1992.

었다.

7, 8, 9 사행중에서도 1711년 제8차 辛卯사행은 일본측에서 저명한 학자들이 가장 많이 우리문인과 시문을 교류한 때로서, 우리측에서도 나이 든 東郭 李石賢²⁾을 제술관으로, 삼방서기 세사람을 모두 글에 뛰어난 이들을 임명하는등, 일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³⁾

일인문사들 중 특히 강호유관인 木寅亮, 高玄岱, 三宅緝明, 室直清, 源保膺, 平元成과 紀伊州 유관인 祗正卿 일곱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문사들인데, 이 칠인이 1711년 10월 28일과 11월 5일 조선사신의 사관에서 제술관 이현, 정사 서기 洪舜衍, 부사서기 嚴漢重, 종사관 서기 南聖重과 시문을 교류했던 바, 이들은 당시 交歡했던 시문과 필담 자료를 모아 각각 창화집을 편찬했고, 다시 이 일곱 책을 합하여 七家唱和集을 간행했다.

따라서 18세기 한일문사 교류의 이해를 위해서는 칠가창화집의 고찰이 필수적이거나와 본고에서는 이들중에서 먼저 실직청을 주목했다. 실직청(1658-1734)은 호는 鳩巢, 자가 節禮로, 17세기 주자학의 대유 목하순암(木下順菴)의 제자인데, 스승으로부터 忠信篤敬하고 聖學에 뜻을 둔 인물로 높이 평가받았다.⁴⁾ 그는 강호에 오기 전 지방에서 大學을 강

2) 이현은 일문사와의 창화 가운데 갑오생(1654년)이라 밝히고 있어, 사행시 나이가 57세였다. 室鳩巢가 “又賦呈東郭”을 읊은 후 동곽에게 “僕始以爲公必壯年之人, 今謁見齒德之高, 出意外…” 운운한 것으로 보면 해외에 파견하는 사신으로는 상당히 고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朝鮮客館詩文稿.

3) 이렇게 된 이면에는 1682년 제7차 사행시 조선의 문사들이 일본문사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그 이전과는 달리 제7차시에는 조선사신과 교류하려는 일본문사의 욕구가 대규모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측에는 제술관이 없었고 삼방서기 역시 모두 시문에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듯하다. 오히려 자제군관으로 참여했던 洪世泰, 역관 安愼徽 등이 시문에 능해 겨우 그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었으나 그들의 불만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1711년 동곽 이현의 제술관 임명은 이들에 대해 전열을 정비하면서 내놓아진 인물이다. “18세기 한일문사의 교류양상”, p. 100 참고.

4) 猪口篤志, 日本漢文學史 (일본: 角川書店, 1984), pp. 254-255.

의하기도 했는데, 그의 제자 浚新은 실직청의 大學新疏를 통신사들에게 전해서 일본에도 주자학에 뛰어난 학자가 있음을 알리고 싶어했다.

그는 이 시를 쓴 1711년 나이 53세에 강호막부의 유관이 되었으나, 실직청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상을 펴기 시작한 것은 제7대 관백 吉宗의 시대로 그는 길종의 명으로 서민교육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六論衍義 大義를 편찬한다.⁵⁾ 그는 주자학자로서 명교의 유지에 노력했지만 당시 절충학파에게서도 추앙을 받았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배경은 실직청이 당시 조선의 사상 배경과 유사한 인물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그가 일부 일인 국학자처럼 조선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며 배타적이지 않고, 당시 온건한 일본 지식인의 입장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17,8세기 한 일문화교류의 실상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조선의 건국부터 당대 강호막부와의 사신교류까지의 역사를 읊은 실직청의 朝鮮客館詩文稿 소개 賦三韓事蹟奉寄朝鮮禮聘諸使君 二百二十韻을 분석하고 그가 보여준 한국사인식을 살펴본다.

II. 부삼한사적시의 구성

이 시는 총 440행으로 陽운으로 압운했고, 환운없이 一韻到底했다. 전체 구성은 임란전까지 조선사 전개가 260행, 임란과 통신사교류가 180행이다.

1) 조선의 역사전개

작가는 삼한⁶⁾의 역사를 단군조선이 너무 묘막하다는 이유로 기자조

5) 六論이란 1.孝順父母 2.尊敬長上 3.和睦鄉里 4.教訓子孫 5.各安生理 6.無作非爲 이다. 十達也, 江戸時代を考ふる (東京: 中央公論社, 1990 제3판), p. 42.

6) 일문사의 시 가운데 조선울 지칭하는 명칭은 桑韓, 三韓, 朝鮮, 韓國, 鯨魚城 등이다. 실직청의 시에서 삼한 역시 조선고대로부터 18세기 당시까지

선에서 시작한다. 고조선 시대를 다룬 총 40행중 24행이 기자조선에 관한 것으로 팔조법금, 홍범구조를 통한 기자의 교화를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의 한나라 건국, 연나라 위만의 조선침략, 한무제의 한사군 설치, 한나라 멸망과 진나라의 어지러움등을 그리면서 “오래되었네 나라에 주인이 없으니”라는 구절로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공백기였음을 암시한다.

제 41행부터 108행까지는 고구려에 관한 것인데 그중 동명왕의 출생과 건국이 16행에 걸쳐 묘사된다. 동명왕의 출생에 대해서는 모계만 언급하고, 동명왕은 무예에 뛰어난 이인으로 그린다. 제 57행부터 끝까지 고구려와 주변국과의 투쟁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신라, 백제, 연나라, 위나라등과의 싸움으로 한토는 어지러워지고 서로 원한을 맺게 되었다는 것, 중원에 의지하고자 하나 포악한 수나라가 일어나 계속적으로 싸움에 들어갔다는 사실들이 나열된다.

고구려와 수·당과의 싸움에서는 전자의 경우 을지문덕이 등장되지 않았으며, 고구려의 군민은 승리의 사실보다 오히려 종전을 기뻐하여, 살수싸움이 고구려측에도 부담이 되었음을 측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후자의 경우 당의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어, 연개소문은 폄하되었고, 안시성의 승리는 명시되지 않았다.

109행부터 120행까지는 삼국의 전쟁과 신라의 통일을 신라측 관점에서 기록한다. 특히 신라의 김유신과 신라통일에 관여한 중국을 명시하고 있다. 121-134행까지는 통일신라의 중흥과 멸망을 그렸는데 총 14행중 12행이 진성여왕의 실정과 도적의 횡행등 통일신라의 혼란을 묘사한다.

고려의 역사는 135행부터 228행까지 총 94행에 걸쳐 묘사되고 있다. 먼저 왕건태조와 그의 건국과정을 그리고, 다음에는 고려의 대외관계와 불교를 중점적으로 그린다. 고려는 송의 흥기로 문교가 일어났으나 금나라를 섬기고 불교를 숭상했음을 비난하면서, 특히 후주, 송에 이어 요, 금, 몽고 등 주변정세에 의해 항상 흔들리던 나라였음을 보여준다. 고려말기는 공민왕, 우왕 등의 부패와 신돈 같은 신하의 혼정등으로 채워지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몽주를 10행에 걸쳐 묘사하고 있다.

229행부터 261행까지는 조선의 건국부터 임란이전까지의 역사이다.

포괄하는 한국사의 의미를 지닌다.

도성, 거리, 종묘, 문무과거, 산물, 풍속 등을 긍정적으로 읊고 있어 지금까지의 비판적 시각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2) 임진란과 통신사 교류

임진란에 관한 부분은 261행부터 333행까지 총 72행으로, 이전의 조정이 왜 옛 우호를 서로 잊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막연한 의문으로 시작한다.

전쟁 발발후 대마도, 부산의 당황한 모습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대한 구원병의 요청, 어가파친, 삼경의 함락과 고을의 파괴, 백성들의 죽음등이 이어져 묘사된다. 다음에는 심의경의 화의노력과 그에 대한 비판, 풍신수길의 죽음과 군대의 퇴각이 그려지는데, 이 때 자행된 방화, 약탈과 살상이 객관적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작가는 전쟁중 일본이 받은 피해로 끝막음함으로써 가해자, 침략자로서의 일본의 이미지를 경감시킨다.

통신사교류는 333행부터 403행까지 70행에 걸쳐 묘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덕천막부의 치적, 통신사의 도일, 작가 개인의 감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덕천가강의 선조를 요순시대부터 시작하고, 강호막부가 형벌의 사용이 없으나 감옥이 비어 있으며, 덕치와 예악에 의해 이웃과 우호를 유지하는 나라임을 천명한다.

통신사행은 주로 사절의 뛰어난 학문과 문장, 험난한 사행의 경로, 그리고 강호도착 이후의 공식적인 행사참여를 묘사한다. 마지막 38행은 작가가 사신들의 위치를 부러워하고 스스로 낮은 위치에 있음을 부끄러워 하면서 새로이 정을 나누는 통신사들과의 이별을 서러워하는 마음을 표출한다.

III. 조선사 인식의 시각

1) 조선사 전개의 측면

실직청의 조선사인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먼저 삼한이 천부의 성인 지국임을 부인한 것이다. 한 나라의 시조는 대체로 설화형식으로 남아

있기 마련으로, 이에 대한 후대의 역사적 인식은 전통의 확인과 강조, 그리고 민족 자존심의 원천이 된다. 이 시에서는 먼저 단군의 시대가 너무 묘막하다고 한마디로 무시함으로써, 천제의 아들 환웅이 지상에서 얻은 아들인 단군과 그가 세운 나라를 허황하다고 보는 작가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동명왕에 대한 묘사이다.

그 이전 부여국에 하백의 딸 임신해 있었지
 연길의 난초꿈보다 향기 지나치고 알을 삼킨 강씨와 상서로움은 같네.
 어찌 이인이 나와서 먼저 나라를 일으킬 상서로움이 될줄 알았으리
 맹렬한 위세는 덕이 큼을 알겠고 능숙한 활솜씨는 養由基를 비롯네
 나라를 세워 도읍을 창건했고 밭을 개간해 넓은 들판을 헤쳐다.
 가문 계승함이 뛰어나고 실추함 없는 무예 빛나도다
 군현을 모두 집어 삼켜 멸하니 호추들이 감히 대항치 못하네.
 (伊昔夫餘國, 有娠河伯娘. 夢蘭香過姑, 吞卵瑞同姜. 焉識異人出, 先爲興
 國祥. 猛威知偃草, 巧射笑穿楊. 開宇創都邑, 墾田披莽蒼. 有承家奕奕, 罔
 墜武泑泑. 郡縣皆吞滅, 豪酋莫與疆)

총 14행에 걸쳐 동명왕이 묘사되고 있어 작가가 이 부분에 상당히 힘을 기울인 점이 보인다. 특히 동명왕의 모계, 특이한 출생, 그의 덕과 재능, 국가의 창건과 영토의 확대 등 대체로 그의 일생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동명왕과 천자 해모수와의 관계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규보가 동명왕 서사시에서 해모수에 관한 부분을 동명왕의 일생에 필적할 만큼의 분량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나라의 시조 동명왕이 천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작가는 여기서 단순히 모계만 언급함으로써 고구려와 고구려를 계승한 조선이 하늘이 세운 나라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또한 동명왕의 덕보다는 무예가 보다 강조되고 있고, 다른 부족국인들이 투항한 것이 아니라 동명왕이 그들을 무력으로 멸망시킨 것으로 본 점이다. 역사에 기술된 동명왕은 비록 나면서 활솜씨가 탁월한 영웅이었으나, 그가 부여군의 추격군을 물리치고 비류국을 합병한 것은 자신의 무예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당면했던 여러가지 위

기는 모두 하늘의 도움에 의해 해결되었고, 이것은 그가 바로 하늘의 자손임을 분명히 해 준 기회가 된 것이다.

단군대신 강조된 것이 기자인 바, 작가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개를 기자조선-고구려-통일신라-고려-조선으로서의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기자의 東來는 “明夷箕子狂”이란 귀절로 보아 조선에 봉해진 후 왔다는 사기의 설보다는 은나라 紂王의 무도함을 피해 조선에 온 후 봉함을 받았다는 상서의 설을 따르고 있으나, 작가가 조선을 역사적으로 중국의 문화적 또는 정치적 속방으로 보려는 의도는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기자조선의 묘사 중 상당부분을 도덕성에 할애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기자조선의 강조는 작가의 문화의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조선의 경우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작가의 고구려 인식이다. 먼저 기자조선에서 고구려로의 계승은 민족적인 것이 아니고 지리적인 요인(高麗因土起) 때문인 것으로 본다. 또한 고구려 성립기를 상당히 늦춰잡고 있는데, 중국이 한 이후 위진의 혼란을 겪는 동안 기자조선의 멸망과 위만조선의 성립, 그리고 한사군을 거치면서 조선 역시 역사적인 공백기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구려의 출현은 이 다음에 이어진다.

작가는 조선사에서 삼한 정립기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신라, 백제의 묘사는 다음과 같은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몇 줄 언급될 뿐이다.

동명의 공업은 가히 계승할만하고 복유의 용기는 당하기 어렵네.
대적하던 신라 두려워하고 의종던 백제 무서워하네
어찌 헤아렸으랴 연나라가 굴기하고 거듭하여 위나라가 일어날 것을
.....

서로 셋으로 나뉘어 대치하던 형상 옛날과 비슷하고
(東明功可繼, 北虜勇難當, 敵國新羅震, 懿親百濟惶. 豈料燕崛起,
重以魏高驅...鼎足似遠峙...)

여기서 신라와 백제는 북연, 북위와 같은 주변국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단지 “鼎足似遠峙”란 구절이 유일하게 아마도 그 이전의 삼한의 대치와 유사한 삼국의 정립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대체로 작가는 조선의 역사적 전환은 중국의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삼한의 역사는 자주적 전개라기보다 대외정세에 의해 굴곡된 것으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도 그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고, 패배하여 외국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이들에 대해 끊임없이 일으켰던 항쟁의 역사는 도외시하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을지문덕, 양만춘은 등장하지 않으며, 고려의 강감찬, 조선의 이순신 역시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⁷⁾

특히 고구려 역사는 전적으로 외국과의 전쟁의 역사로 묘사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이었던 살수와 안시성 대첩의 묘사를 보자.

살수에서 군대 흩 무너트리고 요동성에서 못사람 못을 허물었네
 동정한 장군들 패하고 내란으로 수양제 어찌할 줄 몰랐네
 수령이 이에 보존되었으니 하물며 회유에 다시황급하리
 군사는 수레갈지 않게됨을 즐거워하고 나라는 臥車를 물 수 있음을 기뻐하네
 (薩水軍崩土, 遼城衆潰塘. 東征諸將敗, 內亂獨夫惶. 首領於此保, 懷柔況復速. 兵
 欣休輓輅, 國喜駕轡輟)

삼주입구에서 항복을 받고 시월 찬바람 불때 회군하네
 구향자 갈백을 정벌하고자 했으나 도리어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드는 버마
 제비에 상을 주었네.
 (受降三州口, 回旗十月朔. 欲征仇餉葛, 還賞搏輪螭)

첫번째 인용한 부분은 612년 수나라 양제의 고구려 침공시 고구려가 살수에서 막았던 강물을 무너트리 수나라 30만 대군 중 2000여명만 살

7) 여기서 작가가 주로 참고한 사서가 어느 나라의 것인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직청은 스스로 그가 읽은 서적에 대해 밝힌 바가 없지만 다른 일문사의 경우 동국통감을 언급한 예가 많다. 1682년 사행후 출간된 和韓唱酬集 東使紀事에는 “동국통감에 의해 논하건대 삼한은 후 발해에 예속되고…” 운운하는 것이 있고, 1711년 필답에 참여했던 正數도 경국대전, 동국통감등에 일본에 관한 기록중 오류가 많다는 것을 불평한 바 있다. 실직청은 중국의 사서는 물론이고 적어도 동국통감, 고려사 등은 보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그의 삼한사적시에 보이는 시각은 자료의 문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남게 한 것과 다음 해 정월 요동성에서 수군이 만든 地道를 허물어 침입을 막은 사실을 그린 것이다. 이 싸움의 실패로 수장은 처벌을 받고 수나라도 결국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에 대한 고구려인의 반응이 승리의 기쁨보다 오히려 전쟁이 끝났음을 안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살수싸움이 고구려측에도 부담이 되었음을 암시하면서 그들의 용감한 항쟁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두번째 인용한 당태종과의 싸움은 그것이 마치 당이 온전히 승리한 전쟁으로 오인하게 묘사되고 있고, 더욱 양만춘을 당태종의 연개소문 정벌의 깊은 뜻도 모르고 달려드는 螳螂距轍의 어리석은 버마재비로 비유했다.

고려사의 전개도 똑같이 중국의 정세변화에 따라 흔들린다.

오랑캐 중화를 더럽힌 이래 일야로 복적들 영토를 침범하네
성문에 붙은 불이 이어 池魚와 林木의 재앙이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⁸⁾
요나라 금나라 침입하면서 나라의 병 골수에 깊이 들었고
몽고가 그 뒤를 이어 나오니 정벌의 야욕을 기가 차서 바라보네.
(自從戎滑夏, 日夜狄侵疆. 何異城門火, 延爲池禦殃. 遼金侵在苒, 家國病膏肓.
蒙古出其後, 戎心視已矐)

거란의 침입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몽고가 침략했을 때 강화도에서, 그리고 육지에서 보여준 고려인의 용감했던 항쟁의 역사는 무시되고 있다. 강화도에서 30년간을 버티다가 몽고에 투항한 후 성을 철거한 사실을 읊으면서 오히려 몽고의 세력 앞에 두려워하는 고려인의 공포심을 부각시켰다.⁹⁾

8) 室直清, 與朝鮮李學士別幅 “...至於城門池禦之語, 則取之魏諺. 所謂城門失火, 殃及池魚者, 亦謂當時上國之亂, 延及高麗耳.” 朝鮮客館詩文稿.

9) “허물어지는 도성 하늘이 무너지는가 의심하고 / 무너지는 벽 우뢰 부딪치는 소리인가 놀래네(墮都訝天墜, 崩壁駭雷礮)...” 이 부분은 고려사 고종 46년조의 “城郭 摧折, 聲如疾雷, 震動閭里, 街童港婦, 皆爲之悲泣”이란 기록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에서는 백성들의 공포가, 후자에서는 안타까움이 그려졌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조선조 후기 악부시중 撤城怨 혹은 撤城歎은 바로 이 사실을 읊은 것이나, 이들 악부시가 그린 것도 고려 백

이처럼 삼한의 역사에서 작용한 대외정세는 나라를 혼란하게 하거나 망하게 한 요인이 되어, 결국 조선의 역사가 항상 주변 중국의 정세에 영향을 받아 타율적으로 전개된 듯한 인상을 갖게 되는 바, 덧붙여 이 시가 삼한의 실패와 혼란의 역사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신라통일기의 역사를 그린 총 14행중 난숙했던 신라의 예술 문화는 전혀 외면되고, 2행이 신라가 중흥했다는 사실을, 끝의 두 행이 백성들이 새로운 혁명의 주인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그린 것 이외에는 나머지 10행 전부를 통일 신라의 혼란상으로 채우고 있다. 그중 6행은 국운의 쇠퇴, 흉년, 진성여왕의 실정과 도적의 횡행등 혼란된 상황을 그리고, 나머지 4행은 이러한 혼란을 비하된 비유로 묘사한 것이다.

비유컨대 교만한 연작이 부질없이 늪나무에서 떨어지듯
 나라는 너머져 구른 나머지의 소태요, 땅은 찢긴 후의 오이속 같구나
 (比如驕燕雀, 空自墜榆枋, 國是轉餘孽, 地猶裂後窟)

작가는 신라가 이렇게 너머져 구르고 찢겨진 더 이상의 희망없는 처량한 나라가 된 것이 도덕적인 성실성의 결여에 기인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교만한 연작은 아마도 분수없이 사치하게 살았던 신라 하대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신란 이후의 고려 역시 전적으로 실패의 역사만 묘사하고 있는데 사냥을 좋아하던 충렬왕, 우왕등과 미남자로 자제위를 채우던 공민왕의 실정, 임신한 자신의 소첩을 왕에게 바친 진나라 여불위로 묘사된 신돈의 부패와 이로 인한 僞王의 즉위 등이 고려후기의 역사를 대표한다.

이러한 실패의 역사는 시에서 “어찌 헤아렸으리,” 또는 “누가 알았으리” 등의 반어법의 빈번한 사용으로 삼한의 역사전개에 대한 작가의 안타까움을 표출하면서 더욱 강조된다. 실패위주의 묘사는 고려로 끝나는데, 이것은 그들이 교류하는 조선의 통신사에 대한 검사와 예의 때문일 것이다.

성들의 외적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까지 나약해진 조정에 대한 원한과 탄식이었다. “...嵯峨百雉掃地盡, 下民不語墮淚悲. 東方亦是千乘尊, 底事自弱而至斯...” 李漢, 撤城歎. 海東樂府.

2) 임진란을 보는 시각

임진란의 묘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은 작가가 난의 발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 역시 피해자임을 암시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본래 두 나라가 서로 다른 풍속을 통문하는 우호적인 나라였으며, 임란이 조선 뿐 아니라 일본측에도 큰 두려움을 주었음을 강조한다.

전조는 무슨 일로 좋은 관계를 홀연히 잊고
전쟁이 하루 아침에 일어나니 두 나라 민심 두려워 하네
(前朝緣底事, 舊好忽相忘, 兵禍一朝起, 民心兩地懼)

여기서 전조는 풍신수길의 집정기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온건하게나마 책임을 풍신수길이 양국의 우호를 깨트린 것으로 돌리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임란이 풍신수길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본 것과 함께, 결국 임란을 풍신수길 일개인의 문제로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규면된다. 그는 동시에 전쟁의 폐해를 묘사하면서 “영원히 식자의 마음상함이 되네”란 구절을 통해 임란이 당시 지식인 일반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전쟁이 극히 장엄하게 묘사되었다는 것으로¹⁰⁾, 여기서는 전술한 조선사의 전개에서 반어법의 빈번한 사용으로 작가의 주관적 시각을 드러내던 것과는 다르게, 시인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위장된 객관적 거리의 유지가 오히려 전쟁의 주범인 일본측에 가 있는 작가의 편향된 입장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그는 전쟁이 조선에 준 폐해에 대해서 쓰면서도 동시에 일본 역시 이 전쟁의 피해자임을 강조하여 가해자로서의 일본의 모습을 희석시키고 있다.

웁은 망가져 붉은 땅 되었고 시체는 쌓인 것이 몇 층이나 되었는지
백성은 남쪽 황야 발두렁이에 흩어졌고 원통한 귀신은 북망산에서 통곡하는데

10) 旌旄蔽天日, 舳舻連海航. 武誇天下健, 刀試日東鋼. 馬島傳聲大, 釜山馳檄忙. 崩騰傾地軸, 震蕩絕乾綱. 千砲雷飛石, 五兵電合鎗……

오직 가파른 산들만 남아있고 부질없이 물은 출렁출렁 흐르네
 (邑屠開赤地, 屍積幾層岡. 民散荒南畝, 鬼冤哭北邙. 唯餘山嶺橫, 空有水湯湯)

시체 쌓아 봉토하여 무공을 자랑하니 천가가 나라위해 죽은 혼 뵈곡하네
 고아자식 슬픔이 배를 찌르고 과부 눈물이 동자를 채우니
 어저 당년의 원한뿐일 수 있을까 영원히 식자의 마음상함이 되네
 (一切封京觀, 千家哭國殤. 子孤悲刺骨, 寡婦淚盈眶. 何限當年恨, 永爲識者傷)

윗편은 조선이 받은 피해상황이고 아래 인용은 일본측의 묘사이다. 똑같이 억울한 백성들의 죽음과 이산을 그리는데 다른 점은 윗부분은 관습적인 표현으로 일반화된 묘사이고, 일본 것은 전쟁중에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고아와 과부의 슬픔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비극성을 형상화시켰을 뿐 아니라 이것을 일본의 지식인 전체의 견해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작가는 전쟁이 가져온 파괴와 동시에 문화의 이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하고 있다.

한나라 동산에 대완국의 말이 오고 연나라 계구에 제나라 문수의 대나무 옮겨오네
 화염은 옥을 가리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데 날치도 남기지 않는구나
 거듭 수많은 사람 분노를 일으키니 한치의 보상도 어려워라
 개선하여 비록 귀베어 바치나 교만불손한 이무기 불탈을 두려워하네
 (漢苑來宛馬, 薊丘移汶篁. 火炎無擇玉, 漁掠不留鱗. 重致天人怒, 難將尺寸償.
 凱旋雖獻贖, 驕蹇恐焚庭)

여기서 대완국의 말이나 문수의 대나무는 승리한 나라가 누릴 수 있는 전리품이다. 그러나 다음 행에 이어진 약탈이나 파괴는 이를 단지 승리자의 외침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단순한 승리의 전리품으로서가 아니고 전쟁이 가져다 준 역설적인 문화의 이식 또는 교류로서 작가가 주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3행에서 작가는 퇴각하면서 일인들이 저지른 행동이 천인의 노를 거듭 불러 일으켰다고 함으로써 일인들의 약탈과 파괴를 그가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비판이 사과

로 이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을 일본인 전체의 죄과로 환원하지 않으려는 시각이 엿보인다.

3) 통신사 교류를 보는 시각

작가는 일단 통신사행이 단순한 우호사절임을 암시한다. 먼저 그는 이러한 통신사행이 일본의 ‘隣好’의 정신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정신은 덕천막부가 예약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본다. 인호라는 의미 속에는 양국의 동등한 관계가 함유된 것으로, 강호막부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유교적 지치의 실현을 희망하는 작가의 이상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따라서 사절 왕래의 주체는 일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국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공사 운운의 암시는 보이지 않는다. 처음 우리 측의 포로쇄환 요구나 일본막부의 권위고양을 위한 실리적 이유 같은 것도 물론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통신사가 일본에 도착한 후 작가는 강호조정의 융성한 접대를 강조하면서도 두 나라의 만남이나 접대에 어떤 다른 목적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전적으로 양국의 우의 증진을 위한 행사임을 부각시킨다. 일단 작가는 통신사에서 정치적 의미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통신사들의 노정을 장대하게 묘사했다. 통신사들의 문장과 학문에 대한 기림은 그들이 함께 시를 창화하는 상대방에 대한 늘상 있는 미화이겠으나, 그러나 통신사들이 건너오는 수로의 험난함, 일

11) 작가는 먼저 강호막부가 도적이거나 죄수가 없고, 따라서 형벌이 없는 이상적인 정치를 하고 있으며, 백년동안 예약을 일으키고 옛 법도로 이웃나라와 사이를 돈독히 한다고 묘사한다. 여기에는 물론 작가의 유교적 이상이나 당시 통치자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미화가 드러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강호의 통치행정이 확립되었다는 사실은 신유한의 해유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신유한은 그가 사행했던 1719년 당시 관백이던 길종의 위정기, 반드시 후하고 질박함을 먼저하여 궁한 백성을 어루만져 주게 하고, 관에 대한 빛을 감면하고,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면 혹 코를 베고, 발을 베어, 사형을 대신하니 국민들이 칭송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전한다. 해유록 9월 27일자.

본의 아름다운 모습, 육로에서의 사신행렬에 대한 지나친 장황한 묘사는 사신을 맞이하는 일본의 위엄을 강조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래는 천겁파도 뿜고 익새는 백척 돛대에서 나네.
 흰구름 떨어지는 나무에 걸리고 붉은 해 부상을 떨치도다.
 삼도는 장미가 떠있는듯 하고 십주는 모를 꽃은 듯
 (鯨噴千重浪, 鷗飛百尺檣, 白雲懸落木, 赤日拂扶桑, 三島疑浮齋, 十洲似挿秧.)

일본은 선계인 삼도와 십주로 비유되고 일본과 조선 사이는 고래파도로 그려졌다. 선계로서의 일본의 모습이나 鯨波, 扶桑 등의 표현은 통신사와 일문사의 창화시에 거듭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짧은 절구나 율시에서와는 달리 이렇게 장편시에서의 집중적인 묘사는 일본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표출로 간주된다.

여기서 험한 파도는 망망한 대해 넘어 있는 일본과 조선과의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거리이기도 한 바, 비록 작가가 선린의 주체를 일본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가 의식했건 하지 않았건 두 나라의 우호가 이러한 우리측의 험난을 무릅쓴 희생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통신사절들의 강호조정과 연회 참석이후 곧 이어져 총 38행에 걸쳐 그려진 작가 개인의 회포다. 처음 삼한의 역사를 그리기 위해 시작했던 이 시가 정치적으로 소외된 작가 자신의 쓸쓸한 심경을 표출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 것은, 그가 조선의 사신들에게서 받은 문화적 충격 때문일 것이다. 스스로를 서책과 친하여 항상 경서를 연구하고, 성인을 우러러보고 사는 사람임을 자인하면서도, “그대 임금 결 총애받는 신하임이 부러워, 스스로 낮은 지위에 있음을 부끄러워 하네”라고 읊게 된 것은, 통신사행에 온 우리측 인물, 특히 세술관 이동광처럼 나이가 들었는데도 글을 잘하는 이유 때문에 임금의 사랑을 받아 선출되었다는 사실에 기인된다.¹²⁾ 그가 받은 충격은 조선이 글과 인재를

12) 동광은 1654년생이고, 실직청은 1658년생이므로 양인은 거의 동년배로 볼 수 있다. 실직청이 동광에게 특히 호감을 보인 것은 나이가 비슷한데 연유한 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는 與朝鮮李學士書에서 동광이 높은 나이에 도

알아주는 나라라는 점에서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IV. 삼한사적시에 나타난 강호사상의 특성

1) 강호사상과 식민사관과의 거리

강호시대 조선사 연구는 일반적으로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첫째는 조선의 주자학, 특히 퇴계의 학문을 존경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한 것, 둘째 과거 일본의 조선폰배를 주장하는 일본 국학자들에 의한 연구, 셋째 해방론자(海防論者)들에 의한 연구이다.¹³⁾

여기서 둘째, 셋째 그룹의 조선관 역시 강호사상의 한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특히 두번째 일본 국학자들의 시각은 일제의 조선강탈, 일선동조론, 일한일역론 등과 이어진다. 그러나 당시 우리문사들이 접촉한 사람들은 대체로 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17,8세기 한일문화교류에서 주목되는 것은 첫번째 그룹이다.

첫째 그룹에 속하는 실직청의 삼한사적시 역시 어떤 면에서 단군조선을 부인하고 기자조선설을 강조한 점, 외세에 의한 조선사의 타율적 전개와 실패의 역사에 치중한 점 등이 식민사관을 주창하던 자들의 견해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고구려에 대한 강조는 일제가 만주를 침탈하는 명분이 되기도 했다.

특히 고구려와 중국과의 전쟁이나 삼국 상호간의 투쟁에 있어 이러한 전쟁이 지닌 내적 발전에 대한 고찰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점도 그렇다. 고구려의 끊임없는 대중항쟁과 승리가 한반도에 삼국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며¹⁴⁾, 더 나아가서 라당에 의한 통일신라로

불구하고 사행에 참여한 것을 “忠臣之於國，知有君，不知有身”이기 때문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13) 이만열, “일제학자들의 식민사관”, 한국의 역사인식 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제11판), p. 501.

14) “고구려는 중국민족의 침입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했고, 그러므로써 남쪽의 백제와 신라가 온존하게 성립되어 나갈 수 있게 하였다.” 김두진, 고대

가는 역사발전의 계기가 된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거대한 중원의 통일세력 앞에 흔들림없이 싸워 승리한 그 기백과 용맹은 인정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결국 당시 주자학자의 입장과 국학자들의 입장이 한국사 시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밀히 살펴보면 실직청의 시각은 당시 국학자들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고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그 시기 양식있는 지식인들의 한국인식의 일면을 제시해준다.

먼저 단군이나 동명왕의 천손됨을 기술하지 않은 것은 허황한 것을 부정하는 유가적 합리성에 기인된 점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목하순암의 제자로 실직청과 함께 木門十傑의 일인인 祇園南海 역시 단군조선-기자조선 그리고 이태조가 창건한 조선과 통신사 교류를 그린 시를 지었는데, 그중 단군조선 부분에서 단군이 중국 요임금과 동시대라는 것, 수도를 백악으로 옮긴 것, 神化한 것 등을 읊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조상 단군은 木德을 타고 자손을 조선에 퍼쳤네”라 했을 뿐 그가 천자의 아들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¹⁵⁾ 실직청도 단군조선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설화의 역사적 인식을 거부한 것으로 추측된다.

상술한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에서도 작가는 고구려의 용맹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수를 폭려하여 하나라 절의 창광함보다 지나치다 했고, 려당의 경우 비록 당의 입장에서 기술했으나 당태종이 세운 주필산의 승전비가, 이전 주나라 때 소백이 정사하다 쉰 곳이라 해서 백성들이 정성을 바치고 사랑했던 팔배나무에 비해 부끄러운 사실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삼한의 전통이 지닌 도덕적 우위를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시에서 삼국의 정립이 명확히 기술되지는 않았으나 삼한의 일본 조공설이나 임나부의 존재등을 쓰지 않은 것도 주목할만하다. 당시 일본 문사들 중에는 필담 가운데 이를 공공연하게 사실로 언급하는

의 문화의식,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탐구당, 1984), p. 268.

15) 祇園南海, 贈李學士東郭百五十韻, 賓館稿紵集卷上, 七家唱和集. 총 300행 중 122행이 단군조선, 기자조선과 이씨조선을 그리고 있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¹⁶⁾

고려의 경우 중국의 정세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대륙이 송, 요, 금, 원등으로 빈번히 교체되는 와중에서 고려가 지속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외국에 의해 멸망된 왕조가 없었다는 사실 역시 그 자신이 입증한 셈이다. 그는 대수, 대당전쟁의 승리나 왕조의 변함없는 지속의 동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게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임란시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웠던 시기였지만 “단지 신령의 있음에 의지해 어찌 사직을 잃게 할까”라는 그의 반문은 그 힘이 민족자체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음을 암시한다. 그는 임란을 文祿·慶長の 役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2) 문화와 예치에의 관심

이 시에서 작가는 특히 조선의 문화와 통신사의 의례, 법도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먼저 그가 조선을 예법과 명교가 행해지는 문화국으로 본 시각은 도처에서 엿보이고 있다. 기자조선에 대한 강조는 물론 조선을 중국의 부속으로 보려는 작가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팔조법금이나 홍범구조의 전수를 통해 조선이 향유하고 있던 도덕성은 그가 이상하는 유교적 지치의 구현인 것이다.

조선이 건국하면서 국호를 조선이라 한 것을 “復國周時號”라 하여 기자조선과 연계시킨데에서 조선이 기반으로 한 유학이념을 기자조선의 이념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삼한이 역사적으로 이러한 도덕정신이 면면히 이어 온 나라였음을 그가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조선이 창건된 후 문묘, 종묘가 완비되고 제례가 확립된 점, 과거에 의한 인재등용 같은 유학에 의한 제도마련과 시행등은 실직청에게 상당히 호감있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유교적 덕목에서 그가 가장 큰 관심을 표한 것은 충이다. 실직청이 시에서 창업주 이외에 제일 비중있게 다룬 인물이 정몽주인데, 무신란 이

16) 일인문사 正數가 동곽에게 한 필담가운데 “貴國與日本通信之事，又二百年。自三韓朝貢日本之事，皆詳于史書…”란 구절이 보인다. 계림창화집 권 12.

후 총32행의 고려후기에 관한 부분중 정몽주가 거의 10행에 걸쳐 묘사되고 있다. 본래 포은은 역사적으로 일인들에게 호감을 준 인물이었다는 점은 고려사열전에서도 보여지고 있다.¹⁷⁾ 실직청은 삼한사적시를 쓴 후 조선사신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몽주가 조선에 와서도 당연히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의 삼강행실도에서도 충의 인물로 정몽주가 가장 으뜸으로 나와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¹⁸⁾

다음으로 작가가 통신사의 법도, 의례에 상당히 세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통신사가 조선에서 출발할 때의 모습을 “황금인을 차고 백옥양을 높이 들었지”라고 상상하면서 “동료는 교외에서 전송하며 행차하며 길가에서 재 올렸네”라고 읊고 있고, 강호에서도 먼저 그들이 입은 상복과 머리에 꽂은 옥비녀를 주시하면서 “절선은 모두 규범에 맞고 진되는 절로 빛나네”라고 찬양하고 있다.

조선의 문화와 예교에 대한 관심은 실직청 일개인에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실직청을 포함한 당시의 유자들 모두가 가졌던 관심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당대 일본의 지식인들이 조선을 중국의 속국 또는 아류시하며 가졌던 우월감과 그들이 실제로 접해서 체험한 조선의 문화에 대한 경도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을 느꼈을 것이다. 양국문사의 교류는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정서 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17) 그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승려들에게 시를 써주면서 쌓은 교분이나 또는 포로들을 송환할 수 있게 했던 일인들의 그에 대한 존경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들이 안타까워 했다는 점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특히 신묘사행시 포은의 11대손인 鄭續述가 선전관으로 사행에 참여하여 일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18) 室鳩巢, 與朝鮮李學士別幅 “詩中及鄭圃隱事, …聞之太祖革命之初, 前朝衆臣, 爭先奔附. 圃隱獨不屈其志, 以身殉國, 可謂忠義之士矣. 蓋人臣各爲其主, 用分宜也. 雖貴國, 亦宜不以勝國之臣絕之. 嘗讀貴國人所著三綱行實書, 觀其載忠臣行事, 以圃隱爲第一, 則公道之行於國也, 久矣. 七家唱和集, 朝鮮客館詩文稿.

V. 결 론

본고는 통신사 교류를 통한 한일문사의 교류를 탐색하는 일련의 작업 중의 하나로, 1711년 제8차 사행시 강호막부의 유관이었던 실직청이 쓴 부삼한사적시를 대상으로 당시 한 주자학자의 한국사인식과 이를 통해 우리 문사들이 접촉한 강호사상의 일면을 고찰하기 위해 기술되었다.

1711년 사행시 한일문사의 시문을 수록한 계림창화집에는 조선문사를 찾아와 창화했던 일문사로, 東武에 35명, 京師 34명, 浪華 18명과 그 밖에 대마도, 축전주 랍도, 장주 적간관 등을 포함하여 백명 이상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보다도 당시 조선문사가 접촉했던 문사들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칠가창화집의 저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당시 강호의 유관이면서 학문에 뛰어난 인물로 후대에까지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실직청은 대학에 정통한 주자학자로서 당시 조선의 사상적 배경과 가장 접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한국사인식은 18세기 우리측 통신사들이 접촉했던 일본문사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때 이 시는 440행의 장시를 換韻없이 이끌어갔기 때문에 시의에 많은 무리를 가져 온 점이 보인다. 陽운은 險韻은 아니지만 220개의 운자를 사용하는 과정 중에 厯, 亢, 魴, 蝗, 螳, 羊, 鱧, 鱔 등 많은 동·식물의 이름을 포함시켜야 했는 바, 이러한 글자들은 시의 전개에 까다롭고 때로 부자연스러운 의미작용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직청이 상당한 수준의 시작능력과 함께 조선역사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당시 일본 문사 가운데에는 실직청외에도 조선의 역사, 지리, 인물, 서적 등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인물들이 많았다.¹⁹⁾ 그러나 실직청처럼 삼한의 사적을 정연하게 관통한 시를 남긴 사람은

19) 칠가 중 室直清, 祗源南海 이외에도 高玄岱는 再呈李學士에서 압록, 두만, 장백, 구의, 철령, 마천령, 모란봉, 목덕산, 룡나도, 울밀대, 연광정, 남한

드문 것으로 보인다.

실직청이 삼한사적시에서 삼한을 대외정세에 좌우되는 실패된 역사의 연속으로 본데에는 확실히 어떤 우월감이 바탕이 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고, 이것은 당시 강호사상의 보편적인 기류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역사인식에 유자의 합리적 세계관이 깔려있고, 또한 그가 삼한의 전통이 지닌 문화적, 도덕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사신들이 실직청을 위시한 유관들과는 적어도 마음을 터놓고 차원높은 학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측 문사들은 일본의 역사를 시화할 지식과 열의를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옳은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더욱 진지한 학문적 토론에 대한 그들의 관심마저 저하시킨 점이 엿보인다.²⁰⁾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체로 우리 문사들은 일본문사들에 비해 장시를 쓰지 못했다. 이것은 워낙 많이 물려든 문사들의 요구에 응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을 필요로 하는 영사시를 쓰거나, 그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옳은 장시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 문사들이 일본의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밝지 못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필자는 17, 8세기에 나타난 한일문사 교류에 있어서 드러나는 특징과 한계는 조선측의 담당자들이 대체로 문

광한루등 조선의 지명과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인명등을 자세히 거명하고 있고(正德和韓集), 木寅亮의 奉送東郭李學士歸朝鮮에는 “...曾想鄭麟趾, 更聞申泛翁. 占魁中重科, 奉使立奇功. 牧隱留詩集, 庸齋存話叢. 陽村詞藻富, 居正唱酬充...”이란 구절이 보인다.(班荊集권하) 三宅觀瀾의 與李學士書 중 “...是乃所云, 金石間作, 星月交輝, 漢文唐詩, 於焉爲盛...”이란 구절은 補閑集序에서 나온다.(支機閒談)

20)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단지 제9차 사행시 제출관으로 신유한이 선발된 것도 그의 문재 때문이었다는 점, 신유한도 자신의 임무가 일인들의 시문요구에 대응하는데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점, 이 시기에는 통신사절과 창화하려는 저명한 학자들의 참여가 현저히 줄어든 점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재워주로 발탁된 중인계층이고, 일본측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자들이라는 점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것은 조선조정이 일본의 시작 수준을 과소평가하고 당시 강호의 유학을 위시한 학문적 수준과 경향 역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에 간 조선측 사신의 이러한 특성은 문인이면서 학문에 뛰어났던 이들이 교류의 중심을 이루던 동시대 燕行使와 다른 점이기도 하거니와, 이에 비해 일본문사들은 오히려 시문보다 학문에 뛰어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필담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통신사행 집단의 성격고찰은 별도의 논문으로 고찰될 예정이다.